"총무원장·동국대 이사직 둘 중 하나 포기하겠다"

정대스님,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3주년을 맞아 12일 총무원 인근 한 음식점에서 불교계 신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대스님(사진)은 관심을 끌만한 두 가지 발언을 했다. 하나는 자신의 거취문제고, 다른 하나는 사면문제다.

먼저 거취문제와 관련해 정대스님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뒤 조만간 총무원장 직이나 동국대 이사직 둘 중 하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3대 중앙종회 개원사에서 밝혔던 겸직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대스님은 개원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진퇴문제를 고려할 뜻을 가지고 있다. 겸직 문제는 종회가 끝나면 선을 긋겠다"고 말했었다.

이같은 의사표명은 정대스님이 동국대 이사장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대스님은 어느 쪽을 내놓을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정대스님이 '자리'를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헌종법상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를 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될 만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곧 총무원장직과 동국대 이사장직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종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파간의 치열한 다툼양상 등 향후 종단 정치 변화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최대한 살리는 차원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대스님이 이날 "두 자리 모두 욕심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그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면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로 인해 자칫 종단 내 불협화음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중앙종회에서도 이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데다, 사면에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대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대스님은 "내년만 종단이 별 탈 없이 넘어가면 종단이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고, 불교가 발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종단 정치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 개원과 관련해서도 정대스님은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을 개원해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모르겠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종단 현안 문제에 대한 언급 외에 총무원장 재임 3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다. 정대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과 종단 안정 도모, 서울노인복지센터 수탁 등 그 동안의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자평하고 "누가 다음 총무원장을 맡더라도 무리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놓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장학재단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설립

정대 총무원장, 13일 장학금 9천만원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설립한 장학재단인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13일 오후 서울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제1회 은정장학금, 학술연구지원, 생활격려금 증서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 연구비 1천만원, 대학생 11명에게 각 3백만원, 고등학생 9명에게 각 200만원, 초중생 5명에게 각 1백만원,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단체 8곳에 각 3백만원씩 모두 9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정대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래 전부터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차에 인연이 닿아 일이 이뤄지게 됐다"며 "장학금은 종교에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장학금을 5백만원으로 늘려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정대스님이 작고한 모친 최은수씨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4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42-2 은정빌딩을 지난 3월 매입해, 이곳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앞으로 매년 1회씩 1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9일 개원식을 가진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 개원 첫날부터 계파간 이해다툼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종회의장 지하, 호계원장 월서 스님

조계종 155회 정기종회, 7개분과 상임위원장도 선출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가 9일 개원하고 지하스님을 종회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곧바로 열린 제155회 정기중앙종회에서 12대 후반기 종회의장이었던 지하스님은 12대 전반기 종회의장이었던 법등스님과 표 대결을 벌여 전체 81표 중 41표를 획득, 1표 차이로 13대 전반기 종회의장에 당선됐다. 수석부의장에는 법조스님이, 차석부의장에는 보선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또 △총무분과위 종광스님 △교육 영배스님 △포교 지현스님 △사회 도공스님 △재정 인행스님 △호법 법안스님 △법제 현우스님 등 종회 내 7개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선출됐다.

이어 15일 속개된 종회에서는 월서스님을 호계원장에 재선출 하고 호법부장 진옥스님 임명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13일 열린 종회에서는 △2002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 특별분담사찰 종정감사의 건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건 △각 종정기관 위원 선출의 건법규위원회 위원, 재심호계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 △200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002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 특별분담사찰 종정감사 보고의 건 등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종회 개원 첫날부터 계파간 이해다툼

조계종 중앙종회 내의 계파대립이 개원 첫날부터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 9일 열린 종회에서 각 계파는 종회 부의장과 7개 분과 의원 배분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회를 거듭한 끝에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겨우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상대 계파 이름을 거론하며 "독식하려 해서는 안된다" "각 계파마다 의원 수가 다른데 (중요 분과의 분과위원을) 똑같은 배분은 곤란하다"며 자파의 입장을 주장했다.

현재 종회에는 무등회에서 이름을 바꾼 보림회, 청림회, 원융회, 일여회에 최근 결성된 무소속연대 등 5개 계파에 초당파를 포함해 사실상 6개 계파가 존재하고 있다. 12대 종회 때의 4개 계파에서 2개 파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무소속 연대와 초당파를 제외한 기존의 4개 계파는 12대 종회 또는 그 이전부터 자파의 이익을 위해 대립 또는 연대하며 종회를 권력다툼의 장으로 변질시켜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13대 종회에서는 이들 계파간의 이해다툼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종회석상에서조차 계파 이름을 언급하는 등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계파식 구조체계'가 공식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계파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하자 10명의 종회의원으로 구성된 '무소속 연대'는 14일 종회가 계파 이해에 따른 나눠먹기식으로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13대 종회 초선의원들도 10일 모임을 갖고 종회가 계파주의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진정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봐타코스

꿈을 ★ 이루십시오!

정신력을 키우고 가꿔 나간다면 귀하의 꿈도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부유함 / 건강 / 성취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쉽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봐타 체험해보십시오.

귀하의 소중한 꿈들을 이루십시오!

해산아봐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봐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간절한 의심으로 용맹정진 부처 뽑는 시험에 합격하라

법전종정 임오년 동안거 결제 법어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시방동공취(十方同共聚)하여 개개학무위(箇箇學無爲)로다.

차시선불장(此是選佛場)이니 심공급제귀(心空及第歸)로다.

사방으로부터 함께 모여들어 모두 무위의 법을 배운다.

여기가 바로 부처를 뽑는 시험장이니 마음을 비워야 급제하여 고향에 돌아가리라.

(중략)

오늘 우리는 선불장에서 겨울 석 달 안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방선원에 운집한 출격대장부인 결제대중들은 결단 있는 의지력과 비장한 용기를 가지고서 모든 방편들을 발로 차서 쳐부수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장 그 자리에서 불조(佛祖)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서 밖으로는 일체경계가 있음을 보지 않고 안으로는 자기가 있음을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모든 성인이 있음을 보지 않고 아래로는 범부가 있음을 보지 않으며 맑고 맑아져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찌 이 마음이 공空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 경지에 이르면 방(棒)이나 할(喝)도 필요 없습니다.

나와 남이라는 시비도 없습니다. 당장에 이글거리는 화로 위에 떨어진 한 송이의 눈과 같을 것이니 이 어찌 선불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로 선발되려면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목을 갖추지 못한다면 설령 천년을 선불장에서 지낸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미 옥당(玉堂)에 올라간 선비는 과거에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급제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못한 이는 반드시 과거시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중들이 오늘 선불장에 모였으니 제각기 화두를 참구하여 부처 뽑는 시험에 합격하려고 한다면 이 삼동 한 철동안 이륙시중(二六時中) 내내 선불장에서 간절한 의심으로 용맹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후략)

억(咄)!

법어전문 www.buddhanews.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대선 불교공약

1.불자님은 현재 대선 주자들의 대불교계 공약사항이 무엇인지 알고계십니까?

①잘 알고 있다 ②대강 알고 있다 ③잘 모른다 ④전혀 모른다

2.모른다면 그 이유는?

①홍보하는 곳이 없어서 ②관심이 없어서 ③기타

설문 참여: 11월 21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7호 A판 8면에 싣습니다.

봉 축

탄·허·불·교·문·화·재·단

普光明寺 旧 자광사 주지 취임식 및 불사 회향 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본 사찰에서는 천불전과 적광전 및 대웅전 불사회향 법회 및 청아스님 주지 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시 : 2002년 12월 1일(일요일) 오전 11:00
◆장 소 : 본 사찰 대웅전
◆문 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49
전화 : 042)822-9219(代)
팩스 : 042)822-8304

행 사 안 내

◆ 제 1부 (08:00) : 점안식

◆ 제 2부 (11:00) : 취임식 및 불사회향 법회
·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사찰연혁소개
· 불사경과 보고
· 내빈소개
· 취임사
· 환영사 및 축사
· 청법가
· 법 어
· 음성공양
· 사홍서원

◆ 제 3부 (12:30) : 점심공양 및 대중화합토론회
· 주제 1 : 불교대학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장소 : 적광전(3층)
· 주관 : 불교대학 졸업생 총 동문회
· 주제 2 : 탄허스님 조사전 및 성보관 어떻게 불사할 것인가?
· 장소 : 다경실(종각)
· 주관 : 한암 · 탄허 문도회
· 주제 3 : 탄허스님 유훈 어떻게 계승 발전할 것인가?
· 장소 : 대웅전(2층)
· 주관 : 본 사찰 신도회

한암 · 탄허 문도회 회주 인허/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전창열 / 오대산 월정사 주지 현해
탄허 장학회 회장 혜거 / 普光明寺 旧 자광사 사부대중 일동
합장